

국어의 명령표현 연구

박 금 자*

1. 서 론

국어에서 명령의 발화의의미는 반드시 명령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령문을 명령법 종결어미에 의해 성립되는 문장유형으로 정의할 때, 다음 (1)에서 보게 되듯, 비종결어미가 이용된 문장도 명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2)처럼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도 명령의 發話隨伴效力(illocutionary force)을 갖는 경우가 빈번하다.

- (1) 가. 좋아, 편히 쉬도록
나. 재학생은 3월 15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할 것
다. 차 세우지 못함
- (2) 가. 가방 좀 들어주겠니?
나. 전원 11시에 연병장에 집합한다
다. 거, 표 좀 빨리 팝시다

(1 가)는 학교나 군대등의 집단에서 교사나 상급자가 복수의 학생이나 하급자들에게 발화하는 상관적 장면의 명령¹⁾이다. (1 나)와 (1 다)는 각기 게시판, 표지판에 흔히 쓰이는 단독적 장면의 명령이다. 예 (1)에서 보이는 연결어미 '-도록', 명사적 표현 '-ㄹ 것'²⁾과 '-ㄴ'이 명령

* 박사과정

- 1) 본고는 명령문은 명령법어미가 갖추어진 명령으로, 명령은 명령법어미의 존재여부와 관계없는 명령의 발화로, 명령문과 명령의 용어를 구분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후자는 전자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의 용어로 쓰일 것이다.
- 2) '-ㄹ 것'은 엄격히 말한다면 관형사형과 명사형의 복합어미이다.

에 쓰인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도록'은 임흥빈(1984. b), '-르 것'과 '-르'은 高永根(1976)과 梁續錫(1976) 참조) 그러나, '-도록' '-르 것' '-르'을 명령표현의 어미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거나, 의견이 상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임흥빈(1984 b)는 '-도록', '-르 것', '-르' 등이 본래적인 문장종결형식은 아니나, 그들 자체로 독자적인 문장종결형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³⁾ 이 견해에 의한다면 '-도록' '-르 것' '-르'은 종결어미는 아니지만, 독자적인 명령표현의 어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梁續錫(1976)은 '-르 것'의 경우, 뒤에 "명령하다/부탁하다/요청하다" 등의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르 것' 뒤에는 "명령하다……"의 동사가 생략된 것이므로 '-르 것'이 쓰인 명령은 明示的 명령履行文(performative-sentence)에서 이행동사가 생략되고 잔류한 불완전문이며, '-르 것'은 불완전문의 일부분일뿐, 독자적인 명령표현의 어미로 해석될 수 없다.

한편 예 (2)는 통사층위의 문장유형과 담화층위의 발화의미가 1:1의 대응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곧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이 자기 본래의 발화의미인 질문, 진술, 제안을 갖지 않고 명령의 발화수반효력을 갖는 경우를 보여준다. (2 가)는 가방 좀 들어달라는 요청'을, (2 나)는 전원 11시에 집합하라는 명령을 (2 다)는 더 기다릴 수 없으니 빨리 표 좀 팔라는 요청내지 명령을 의미한다.

(2)와 같은 명령의 간접화행문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문체법속에 포함시켜 논의하기 보다는 간접화행을 별도로 논의할 때 대상으로 삼고 있다.⁵⁾ 통사층위와 담화층위가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는 요인이 주로, 화

3) 비종결어미로서, 명령표현에 쓰이는 기타 어미에는 선어말어미 '-압-', 명사적 표현 '-르사' 등이 있다.

가) 자리에 돌아오는 대로 즉시 보고하시압

나) 자리에 돌아오는 대로 즉시 보고할 사

4) 요청은 넓은 의미의 명령에 포함된다. 명령이라는 용어에 시킴(order)의 의미만 갖는 좁은 뜻과 시킴외에 요청, 권고, 제의, 허락까지 함의하는 넓은 뜻이 있음에 대해서는 Lyons(1977: 745) 참조. 국어에서는 공손법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시킴보다는 요청, 권고, 제의의 뜻이 파악되나, 이들은 모두 넓은 의미의 명령에 포괄되므로, 하소서체의 '-소서' 까지도 명령범어미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 견해는 徐禎穆(1983) 참조.

자, 청자, 특정어구, 배경, 관례등 화용론적 성분이 강한 것들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간접화행을 문체법 논의에서 분리시켜 다룰 수만은 없다. 문체법 상호간의 경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간접화행의 본질, 종류등이 예시되어야 할 것인데, 기존의 문체법 연구 업적에서도 간접화행의 예는 제시된 전례가 많다.⁵⁾

국어의 명령법을 정리할 때 (1)처럼 명령법 종결어미 이외의 어미가 이용된 명령, (2)처럼 간접화행에 의해 유도되는 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령법을 종결어미의 형태와 의미 중심으로 기술할 수 없음을 뜻한다. 더구나, 명령법 종결어미로 분류되어 온 ‘-어라, -게, -오/소, -(하)시오, -소서’ 중 ‘-어라’와 ‘-게’는 명령법외에 자기·감탄법과 기원, 명서법과 의문법에도 나타나기 때문에⁶⁾, 명령법은 종결어미 중심으로 기술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본고의 목적은 명령의 발화의미를 갖는 세가지 종류의 명령, 곧 ① 명령문, ② 명령법 종결어미가 아닌 어미가 이용된 명령, ③ 명령의 간접화행문을 대상으로, 주로 의미특성에 입각하여, 이들의 명령의 기능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그러한 검토를 위해, 명령법 외에 다른 문체법에도 쓰이는 중첩적 기능의 명령법 종결어미가 나타나는 명령문을 비명령문과 구분하기 위해 명령의 문법적 제약과 의미적 특성을 음미하고(2장), ‘-도록’, ‘-르 것’ ‘-르’은 명령표현의 독자적인 어미로 기능하는가를 검색하고(3장), 명령의 간접화행문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하여 명령의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4장)

2. 명령의 문법적 제약과 의미적 특성

문체법의 경계구분은 종결어미의 형태에 크게 의존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발화상 취하는 태도인 진술, 질문, 명령, 청유는 종결어미에 나타나며, 진술은 명서법 종결어미, 질문은 의문법 종결어미, 명령은 명령

5) 대표적으로 김태자(1987).

6) 高永根(1976), 노대규(1981) 등에 간접화행이 다루어져 있다. 후자에서는 간접화행문이라는 술어대신 擬似文이라는 술어를 쓰고 있다. 한편 간접화행에 대한 보다 이른 시기의 언급은 최현배(1980 : 857~869).

7) 이에 대해서는 2.1에서 후술.

법 종결어미, 청유는 청유법 종결어미와만 흔히 대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령법의 경계구분은 명령법 종결어미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해라체의 '-어라', 하계체의 '-게'가 다른 문체법에도 쓰이며, 감탄법어미로 분류되어 온 '-구료'가 명령법에도 이용되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어라', '-게' '-구료'가 중첩적인 기능의 문체법 어미임을 확인하고⁸⁾ 그에 따라, 명령문은 어미의 형태와 더불어 문법론적 제약, 의미론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구획되는 문장유형임을 확실히 하려한다. 아울러 문법론적 제약과 의미론적 특성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명령에서 의미론적 특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려 한다.

2.1. 어떤 문체법 어미란 다른 문체법에는 나타날 수 없는 그 문체법 특유의 것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정의를 따르면, 종래 명령법 종결어미로 이해되어 온 어미들 '-어라, -게, -오/소, -(으)시오, -소서' 중 '-어라, -게'는 명령법 교유의 어미들로 보기 힘들며⁹⁾, '-구료'는 감탄법 어미로만 분류되기 어렵다.

'-어라'는 다음 (4)와 같은 명령문뿐 아니라, (5)와 같은 감탄문, (6)과 같은 기원에도 쓰인다.

- (4) 가. 철수는 집으로 가(거)라
나. 영희는 철수에게 어서 가라고 했다
- (5) 가. 색깔도 고와라
나. 영희는 수상소식에 좋아라 날뛰다
- (6) 가.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떨어져라
나. 마음속으로만 몸 성히 건강해라라고 빌었다

8) '-어라, -게, -구료'는 중첩적인 기능을 보이기는 하나 '-아/어, -지'와는 그 성격이 물론 다르다. '-아/어, -지'는 모든 문체법에 쓰이며, 그들이 쓰인 문장이 어느 유형인가는 수행역양(임흥빈 1984b 참조)에 의해서 비로써 판별된다. '-어라, -게, -구료'는 모든 문체법에 쓰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쓰인 문장유형은 수행역양에 의해서만 판별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어라'는 '-어'와 '-라'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임흥빈, 1985), 본 논의에서는 '-어라'로 나타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단 '-어라'라고 해 둔다.

9) '-어라'의 중첩적 기능은 高永根(1976)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최근 徐泰龍(1985), 임흥빈(1985)에서 다시 주목된 바 있다.

‘-게’는 (7)처럼 명령문뿐 아니라, 평서문(8), 의문문(9)에도 쓰인다.

- (7) 가. 돈부터 받게
나. 잘 가게
- (8) 가. 문이 잠겼어요? 여기 앉아 계시게(張京姬, 1985 : 56 예문(57))
나. 어서 가. 늦지 않게¹⁰⁾
- (9) 가. 돈부터 받게?
나. 벌써 가게?

‘-구료’는 명령문에도(10) 감탄문(11)에도 쓰인다.

- (10) 가. 식사를 하시구료
(1) 가. 꽃이 예쁘구료

‘-오/소’는 명령법에 쓰이는 형태와 의문법과 평서법에 쓰이는 형태가 동일형태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나(徐泰龍, 1985 : 168), 음운론적 顯現방식이 다르므로 동일형태로 보이지 않는다.¹¹⁾(高永根, 1973 : 124, 146) 명령법의 ‘-오/소’는 선행말음의 자음 유무에 관계없이 수의적으로 쓰일 수 있으나(13), 의문법과 평서법에서는 선행말음이 모음일 때는 ‘-소’의 분포가 제약된다(14 가). 또한 명령법에서 선행말음이 자음일 때, ‘-소’에는 ‘-으-’가 개재되나(13 나), 의문법과 평서법에서 선행말음이 자음일 때 ‘-소-’는 ‘-으-’ 없이 쓰인다(14 나).

- (13) 가. 하나만 더 주오 : 하나만 더 주소
나. *책을 읽소 : 책을 읽으소
- (14) 가. 그가 가오(?) : *그가 가소(?)
나. 아이가 책을 읽소(?) : *아이가 책을 읽으소(?)

10) 이 예에서 ‘-게’는 부사형어미로도 보이나 (8 가)의, ‘-게’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11) 명령법의 ‘-오/소’와 의문법, 평서법의 ‘-오/소’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1930년대에 이르는 자료에서는 분포도 상이하다. 명령법의 ‘-오/소’에는 다른 어미가 통합한 예가 없으나, 평서법의 ‘-오/소’에는 ‘-이다’가, 의문법의 ‘-오/소’에는 ‘-이까’가 통합했다. (예: 가오이다, 읽소이다/가오이까, 읽소이까) 崔明玉(1976 : 161~168)에는 명령법의 ‘-오/소’와 평서법, 의문법의 ‘-오/소’는 기원이 다름이 지적된 바 있다.

이상에서 종결어미 ‘-어라, -게, -구료’가 명령법과 다른 문체법에 나타나는 중첩적인 기능의 어미임을 확인하였다.

2.2. 이 절에서는 ‘-어라, -게, -구료’가 나타나는 명령문을 중심으로, 명령문의 통사론적 제약을 살펴보고 통사론적 제약이 의미적 특성에서 연유함을 설명하기로 한다.

2.2.1. 국어의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으로, 혹은 적어도 ‘감추어진 2인칭 (covert second person)¹²⁾’으로 제약된다. 어미 ‘-으라’가 쓰이는 공개명령의 경우 주어가 문법적으로 3인칭이라 하여, 2인칭 주어제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명령문에서 청자, 곧 2인칭의 존재가 실현되는 방식에는 4가지가 있다. ① 생략되어 文面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② 2인칭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 ③ 호칭어로 나타나는 경우, ④ 3인칭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주어는 2인칭, 혹은 ‘감추어진 2인칭’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예들을 보기로 하자.

- (15) 가. 빨리 수돗이를 데리고 와
 나. 네가 수돗이를 데리고 와
 다. 복동아, 이리 앉아라
 라. 정부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라

(15 가, 나)에서 주어는 생략되거나 2인칭으로 나타나 있다. (15 가)처럼 주어가 생략된 경우, 그 주어는 발화장면에 존재하는 ‘너’임은 쉽게 추측된다. 문제는 (15 다)와 (15 라)이다. (15 다)의 호칭어는 2인칭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호칭어는 상관적 발화장면에서 “‘청자’를 지칭하는 명사구(Levison, 1983 : 71)”로서, 화자가 호칭어를 쓰는 이유는 청자를 발화장면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임홍빈 1983 : 113). 곧 청자는 이미 발화장면안에 존재하고 있으나, 호칭어를 씀으로써, 화자는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15 다), 복수의 청자 중 특정청자를 지목하기도 하며(15 라), 2인칭 대명사를 함부로 쓸 수 없

12) 원래 Sadock(1974 : 32~3)의 용어이다.

는 [+존대]의 청자를 지칭하기도 한다(15 다'').

- (15) 다'. 복동이는 앉거라
다''. 아버지가 가세요

한편 (15 라)에서 주어는 문법적으로 3인칭이나 의미상으로는 '너'이다. 곧 '감추어진 2인칭'이다. (15 라)는 대중매체를 통한 단독적 장면의 발화이다. 단독적 장면의 명령에서 청자는 (15 라)가 실린 대중매체를 접한 모든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명령을 수령하게 될 진정한 청자는 아니다. 화자는 명령을 수령하게 될 진정한 청자를 방관자 청자(bystander)¹³⁾와 구분해야될 필요성 때문에 3인칭 주어를 쓰는 것이므로 (15 라)와 같은 단독적 장면의 명령에서도 주어는 문법상 3인칭으로 감추어졌으나, 의미상 2인칭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화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혼잣말(16), 不定語가 주어인 명령(17)에서도 2인칭 주어계약이 지켜진다.

- (16) 가. 너, 정신 좀 차려
(17) 가. 누가 좀 가 봐라
나. 아무도 말하지 마라

혼잣말에서 화자는 화자로서의 自我가 청자로서의 또 다른 自我에게 명령을 내린다. (17)과 같은 상관적 장면에서 부정어 '누구, 아무'는 화자와 대면해 있는 복수의 청자 가운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어떤 청자'이다. 화자가 마음 속에 정확히 어떤 청자라 한정하지 않고 청자라면 어떤 사람이나 무방하다고 판단할 때, 부정사를 채택하는 것이므로, (17)에서 부정사 주어는 2인칭으로 보아야 한다.¹⁴⁾

13) 청자를 hearer, bystander, addressees, target 등으로 나눌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는 Levinson(1983 : 68) 참조. 李承旭(1980)에서는 청자라는 용어대신 受命者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진정한 청자와 개념이 근사하다. 한편 3인칭으로 나타나는 명령의 청자는 단수보다는 복수, 구체적인 청자보다는 추상적인 청자의 성격을 띠나(임홍빈, 1983), 청자가 현실적으로 근접하기 어려운 대상인 경우에는 단수의 청자, 구체적인 청자에 대해서도 3인칭 주어 명령이 가능하다. (예 : 교장은 물러나라)

14) Bolinger(1967)에서도 'Somebody' 등의 부정어를 2인칭으로 보고 있다.

명령문의 이러한 주어 2인칭 제약은 어디에서 오는가. 명령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명령이란 명령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화자가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령문의 주어가 2인칭으로 제약됨은 명령문이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하도록 발의하는” 지시표현(Directives) (Palmer, 1985 : §3.2)에 소속됨을 말해준다. 국어에서 명령이 지시표현에서 벗어나는 경우, 곧 주어가 3인칭인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영희더러 빨리 오라고 해”처럼 간접화법구문의 내포절 경우이나 표면주어가 3인칭이다.

이상, 본질의 서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으로 제약된다. 그러나 2인칭은 반드시 문법상의 2인칭일 필요는 없다.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시·공간에 있을 경우, 2인칭은 흔히 생략되거나 호칭어로 실현되며, 화자와 청자가 상이한 시·공간에 있을 경우, 화자는 2인칭대신 3인칭을 씀으로서, 진정한 청자를 나타낸다. 명령문의 이러한 주어제약은 명령의 의미개념에서 자명하게 연유된 것이다.

2.2.2.1. 명령법의 서술어는 동작동사에 국한된다. 명령법 종결어미가 나타나더라도 서술어가 상태동사, 제사, 형용사인 문장이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예는 없다.

- (18) 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영희는 난 몰라라 한다
 나. 철수씨는 아직도 학생이더라
 다. 예뻐라
- (19) 가. (영희가 합격했으면) 제법이게?
 나. 꽃이 팝구료

(18)은 ‘-어라’가 쓰이고 있으나 서술어가 상태동사, 제사, 형용사이므로 명령이 되지 못 한다. (19)는 ‘-게’와 ‘-구료’가 쓰이고 있는데 서술어가 제사, 형용사로 역시 명령문이 아니다.

동작성이 없어져 버린 피동적인 ‘-어지-’가 서술어로 쓰이면 명령보다는 기원으로 이해되는 것도 명령의 서술어는 동작동사라는 제약과 맥을 같이 한다.

- (20) 가. 몸만 튼튼해져라

나. 좀 착해져라

피동적인 의미의 ‘튼튼해져라, 착해져라’가 서술어에 쓰임으로써 (20)은 명령보다는 기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

명령문의 서술어는 동작동사라는 제약에서 예외처럼 보이는 예들이 있다.

(21) 가. 부지런해라

나. 조용해라

다. 성실해라

(21)에서 ‘부지런, 조용, 성실’ 등은 분리성이 강한 불규칙어근으로 동사로 전성되기 쉬운 특이적인 어휘이다.

2.2.2.2. 명령문의 서술어 동작동사에는 과거시제형태소 ‘-었-’, 인식양태소 ‘-겠-, -느-’¹⁵⁾가 통합되지 못 한다.

(22) 가. 그대는 나에게서 떠났어라

나. 내일은 님이 나에게서 떠나겠어라

(23) 가. (철수가) 갔지, 안 갔지?

나. (철수가) 모레 떠나겠지, 안 떠나겠지?

(24) 가. 식사를 하시었구료

나. 곧 떠나겠구료

다. 이제 떠나는 구료

15) ‘-겠-’을 미래시제로 보다는 인식양태소로 보는 견해는 安明哲(1983) 참조. ‘-는/다’, ‘-는 구료, -는 구나’에 나타나는 ‘-는/ㄴ’, ‘-는-’의 형태소 인식, 의미기능과약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양하다. 본고는 잠정적으로 임흥빈(1984a)를 따라 ‘는/ㄴ다’에서의 ‘-는/ㄴ’은 ‘-느-’의 이행태로, ‘-는구나, -는구료’에서의 ‘-는-’은 ‘-느-’와 ‘-ㄴ’의 결합으로 인식하고 선어말어미 ‘-느-’의 기능을 “어떤 대상의 내적인 속성에서 비롯하는 실현성”에 관한 화자의 인식양태소로 본다. ‘-다’와 달리 ‘-구료’, ‘-구나’ 앞에서 ‘-느-’는 언제나 왜 ‘-ㄴ’과 결합해야 하는가등에 관한 의문이 남기는 하나, 관형형에서나 종결형에서나 ‘-느-’가 실현성을 문제삼지 못하는 형용사와는 결합에 제약을 갖는다는 점, “철수는 지금 간다, 철수는 내일 간다/철수는 지금 밥 먹는다, *철수는 내일 밥 먹는다” 등의 예에서 드러나듯 ‘-느-’를 시제형태소로 처리하면 의미과약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등이 ‘-느-’를 인식양태소로 볼 수 있게 만든다.

종결어미 ‘-어라, -게, -구료’가 쓰였지만 (22), (23), (24)는 명령이 되지 못 한다. (22 가), (23 가), (24 가)는 ‘-었-’이 쓰여, 행동이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 되지 못 한다. 이미 행해진 행동에 대해 명령이 내려질 수는 없다.¹⁶⁾ 주어진 행동(곧 사건)에 대해서 감탄(22 가), (24 가)이나 물음(23 가)은 가능하다. (22 나), (23 나), (24 나)는 화자의 인식태도를 문제삼는 인식양태소 ‘-겠-’이 나타났기 때문에 명령이 되지 못 한다. (24 다) 역시, 인식양태소 ‘-느-’가 나타났기 때문에 명령이 되지 않는다. ‘-겠-’과 ‘-느-’는 화자의 명제내용에 대한 앎, 믿음을 표시하는 형태소다. 곧 ‘-겠-’과 ‘-느-’는 명제내용이 진리가 될 것인가 여부에 관여적인 형태소다. (22 나)는 ‘님이 나에게서 떠나다’라는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추정으로서의 앎을, (23 나)는 ‘철수가 떠나다’라는 명제내용에 대한 청자의 추정으로서의 앎을, (24 나)는 ‘곧 떠나다’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추정으로서의 앎을, (24 다)는 ‘이제 떠나다’라는 명제가 실현된다는 화자의 인지를 나타내는 발화들이다. 그러나 명령은 언제나 행동에 관계될 뿐, 화자의 앎, 믿음, 인지에 관해서 전혀 관여적이지 않다.

이상 2.2.2.1., 2.2.2.2.를 통해 명령문은 서술어로 동작동사만을 취하며, 서술어에 ‘-었-’, ‘-겠-’, ‘-느-’가 통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령문의 이러한 문법적 제약은 명령이 지니는 의미론적 특성을 감안하면 유기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이를테면,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의미범주인 양태로 파악하고, 양태를 화자의 앎, 믿음, 인식등에 관계되는 인식양태와 화자가 판단하는 행동의 필연성, 가능성에 관계되는 의무양태로 나눌 때¹⁷⁾, 명령은 의무양태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일단 확실히 해두면 명령문에 상태동사, 제사, 형용사가 쓰이지 못하는 점이 효율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극히 疏略하지만, 의무양태의 관점에서 명령의 의미특성¹⁸⁾을 나열해 보기로 한다.

16) 임흥빈(1985 : 294~295)에서는 사건이 주어진 것이라든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든가의 문제는 화용론적 정보로 보고 있다.

17) 두 가지 유형의 양태에 대해서는 高永根(1986), Lyons(1977 : 793~840), Palmer(1986).

18) 高永根(1976 : 43)에서 지적된 의미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25) 가. 명령은 “화자의 의식속에 행동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 행동주가 수행해야 한다, 혹은 수행해도 좋다고 화자가 판단하는 행동의 필연성, 혹은 가능성과 관련되는(Lyons, 1977 : 823)” 의무양태표현이다.

나. 명령은 의무양태표현 중에서도 발화수반행위로 볼 때, 지시표현에 포함된다. 행동주가 청자가 되기 때문이다.¹⁹⁾

다. 명령은 내재적으로 미래세계와 연관된다. 행동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는 세계상태(world-state)는 의무가 지켜지는 세계상태와 동시적일 수는 있으나²⁰⁾ 수행할 수는 없다.

명령문의 동작동사 요구제약, 선어말어미 ‘-겠-, -느-’의 통합제약은 (25 가)와, ‘-었-’의 통합제약은 (25 다)와, 청유문과 약속문이 명령문과 갖는 구분점은 (25 나)와 상호유기적임이 밝혀진다. 또한 ‘-으려무나’가 이용되는 허락은 명령법과 어미구조상의 차이가 있으나, (25 가), (25 나)의 의미기준을 적용하면 동일한 의미범주의 표현으로 묶여짐을 알 수 있다.

2.2.3. 2.2.2.에서 명령문은 발화수반행위로 볼 때, 지시행위에 포함됨을 보았다. 이 절에서는 명령문과 동일한 종결어미를 이용하고 의미론적으로도 명령문과 동일하게 지시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법적 제약도 같이하는 위협²¹⁾과 명령이 갖는 차이점에 주목하기로 한다.

(26) 가. 꽃병을 깨기만 해라(혼 내줄 테니)

나. 못된 짓 자주 해라(혼 내줄 테니)

의무양태의 개념에 입각하면 화자의 의지와 행동 부분이 한 묶음이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가. 화자의 의지(volition)가 포함된다

나. 청자에게 요구한다

다.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라. 청자에게 장차의 행동을 요구한다

19) 의무양태를 갖는 발화수반행위에는 청자가 행동주인 지시행위, 화자가 행동주인 약속행위(Commissives), 비사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원망행위(volitives) 등이 있다.

20) ‘않았거라’와 같은 예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시적이다.

21) 高永根(1976 : 34)에서는 ‘-어라’가 이용된 (26)과 같은 예를 의사명령법으로 처리한 바 있다.

(26)은 종결어미의 형식, 2인칭주어와 동작동사인 서술어의 쓰임 등에서 명령문과 흡사하다. 그러나 (26)은 명령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26)은 명령의 발화수반행위를 충족시키는 화자 중심의 적정조건 (speaker based felicity-condition)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적정조건 of 자세한 사항은 4장에서 후술) 명령에서 화자는 제안된 행동이 수행되기를 원하는 적정조건을 갖는다. 그러나 (26)은 ‘꽃병을 깨라, 못된 짓 해라’라는 화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발화하고 있으므로 명령으로 이해되지 않고 조건적 위협—꽃병을 깨기만 해라, 못된 짓 자주 해라, 결과—혼내줄테니의 의미로 이해된다. 곧 (26가)와 (26나)는 명령이 아니라 조건적 위협으로 이해되는데, 그 이유는 명령이 반드시 갖는 적정조건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6가, 나)가 조건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명령도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는가. 이를테면 명령문인 (27)도 조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26)과 (27)의 차이는 무엇인가.

(27) 가. 시금치 좀 많이 먹어라(그래야 몸이 튼튼해진다)

나, 철수야, 3시에 약 먹어라(감기 낫도록)

일견 (27가, 나)도 조건을 의미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27)이 갖는 조건과 (26)이 갖는 조건은 성격이 다르다. (26)의 조건—결과 사이에는 화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조건—결과 관계는 비자동적이지만, (27)의 조건—결과 사이에는 화자의 고의가 개입되지 않아 자동적인 조건—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상 본절에서는 명령문과 비명령문을 구분하는데 유효한 기준으로 적정조건을 제시해 보았다.

3. ‘-도록’, ‘-르 것’의 명령수행 기능

종결어미가 문말에 오지 않으나 명령으로 이해되는 발화에는 두 유형이 있다. 동사도 어미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28)과 같은 短文 내지 小 型文과 동사와 어미는 나타나되 그 동사가 主節의 동사인지 불분명하고 어미는 종결어미가 아닌 ‘-도록, -르 것, -르’이 쓰인 문장이다.

- (28) 가. 禁煙
 나. 이상, 해산
 다. 조용히

본장에서는 (28)과 같이 동사도 어미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명령은 논의에서 제외시킨다. 단독적 발화장면에서 금지를 나타내는 (28 가), 상관적 발화장면에서 발화시간의 단축을 위해 구령으로 흔히 쓰이는 (28 나, 다)는 생략된 동사가 ‘하다’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뿐더러, 일체의 어미가 없으므로 어미의 기능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불완전문인 것이다.

3.1. 앞서의 서론 예문 (1)에서 ‘-도록, -리 것, -口’이 나타난 문장이 명령의 발화수반효력을 가짐을 보았었다. 그러한 예는 일견 ‘-도록, -리 것, -口’이 같은 총위에 서는 어미로 이해될 소지를 제공하기 쉽다. 이 절에서는 ‘-도록, -리 것, -口’이 同列에 서는 어미인가, 이들은 모두 명령표현의 어미로 기능하는가에 논의를 집중한다.

‘-口’은 종결어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록, -리 것’과 유사하지만, 성격 자체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口’은 평서문에서 ‘-도록, -리 것’은 결여하고 있는 문말에서의 서술기능을 갖고 있다. ‘-口’은 평서문에서 평서법어미 ‘-다’와 거의 유사한 서술의 기능을 보인다. 이를테면 ‘그는 오늘 우리 집에 온다, 그는 오늘 우리 집에 왔다’ 대신 ‘그는 오늘 우리 집에 음, 그는 오늘 우리 집에 왔음’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확인합니다’ 대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확인함’이 가능하다.

따라서 ‘-口’이 쓰인 문장은 명령으로 이해되더라도 ‘-도록, -리 것’이 쓰인 명령과는 달리, 원형적인 根柢文(plausible source)²²⁾ 설정가능성이 처음부터 논의될 필요가 없다.

- (29) 가. 차를 세우지 못함
 나. 15일 하오 두시에 서울역에서 떠남

22) 기저문보다는 변형규칙등에서 덜 엄격한 ‘의미적인 원형문’ 정도의 뜻으로 Bolinger(1967)에서 편의상 채택했다.

(29 가)를 ‘차를 세우지 못 한다, 못 합니다’로, (29 나)를 ‘서울역에서 떠난다, 떠납니다’ 정도로 치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ㅁ’ 뒤에 다른 주절의 동사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ㅁ’은 이미 언급했듯, 서술을 종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ㅁ’이 쓰인 명령은 (29 가)처럼 주어가 2인칭일 수도 있으나 (29 나)처럼 주어가 1인칭일 수도 있다. (29 나)는 내가, 혹은 우리가 15일 하오 두시에 서울역에서 떠나기로 결정했으니, 청자는 이러한 결정에 맞추어 행동을 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곧 (29 나)는 직접적인 명령²³⁾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예로 볼 때, ‘-ㅁ’은 명령표현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어미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도록, -ㄹ 것’은 평서법에서 서술을 종결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 평서법에서의 그러한 비종결적인 기능에 의거하여 ‘-도록, -ㄹ 것’이 쓰인 명령은 주절의 동사가 생략된 불완전문으로 이해되기 쉽다. 곧 ‘-도록, -ㄹ 것’이 쓰인 명령은 그 보다 큰 원형적인 근저문에서 주동사가 생략되어 나타난 것이라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도록, -ㄹ 것’이 쓰인 명령의 근저문 설정은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니고, ‘-도록, -ㄹ 것’이 쓰인 명령은 ‘-ㅁ’이 쓰인 명령과 달리 간접화행에 의거한 간접적인 명령인 경우도 없다.

먼저 근저문 설정이 가능한 가를 보기로 하자.

- (30) 가. 좋아, 편히 쉬도록
 나. 좋아, 편히 쉬도록 한다
 다. 좋아, 편히 쉬도록 해라
 라. 좋아, 편히 쉬도록 명령한다/요청한다/허락한다
 마. 좋아, 편히 쉬도록 바란다
 바. 좋아, 편히 쉬도록 선언한다!강조한다/지적한다
 사. 좋아, 편히 쉬도록 제안한다

(30 가)의 근저문으로 상정 가능한 것은 하나의 문장만은 아니다. 의미적으로는 (30 나, 다, 라, 마, 바, 사) 그 어느 것도 가능하다.²⁴⁾ 그

23) 이 곳에서의 직접적인 명령은 간접화행(4 장 참조)과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직접이다.

러나 어느 것을 근거문으로 설정하든지, 설정의 결과는 생각외로 큰 차이를 가져 온다. (30 가)는 평서문, 명령문, 명시적 명령이행문, 명시적 기원이행문, 명시적 선언이행문, 명시적 청유이행문 중 하나에서 잔류된 불완전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 어느 문장이 (30 가)의 근거문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좀처럼 찾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ㄴ 것’이 쓰인 다음 (31 가)의 근거문설정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따른다.

- (31) 가. 15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할 것
- 나. 15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할 것을 명령한다/요청한다/부탁한다
- 다. 15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할 것을 바란다.
- 라. 15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할 것을 강조한다/지적한다

(30), (31)을 통해, ‘-도록, -ㄴ 것’이 쓰인 명령의 근거문 설정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도록, -ㄴ 것’은 명령법 종결어미이지는 않으나, 또 평서법에서도 ‘-ㄴ’과는 대비적으로 서술의 종결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그 자체로서 명령표현의 어미로 기능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도록, -ㄴ 것’이 쓰인 명령은 언제나 주어가 2인칭임을 고려하면 긍정적일 수 있다고 믿어진다.

- (32) 가. 그래? 그럼 강병장이 알아서 몇 개 신도록
- 나. 네가 가도록
- (33) 가. 귀가 후에는 꼭 손을 씻을 것
- 나. 장사회, 2층에 가서 재떨이를 가져...올 것

또한 (32), (33)은 주어가 2인칭으로, 화자는 동작동사에 표시된 행동을 어미 ‘-도록’과 ‘ㄴ 것’을 이용해서 명령한다. 주어가 1인칭, 3인칭인 경우는 ‘-도록, -ㄴ 것’이 나타나도 명령이 되지 못 한다.

- (32) 가’. *내가 가도록
- 나’. *그가 가도록

24) 화제까지 고려하면 (30 가)의 근거문으로 상정 가능한 문장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 (33) 가'. *내가 손을 씻을 것
나'. *그가 재떨이를 가져올 것

(32 가', 나')가 적정문이 되려면 '내가 가도록 하라'처럼 주절이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32 가, 나)는 주절이 보충되지 않아도 충분히 명령이 된다.²⁵⁾ (33 가', 나') 역시, 적정문이 되려면 '내가 손을 씻을 것이다, 그가 재떨이를 가져올 것이다'처럼 동사가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동사가 보충된 문장은 의도나 추정 구분이 될 뿐, (33 가, 나)처럼 명령이 되지 못한다.²⁶⁾

이상에서 '-도록, -ㄹ 것, -ㄴ'은 명령에 쓰이며, 이 중 '-ㄴ'은 '-도록, -ㄹ 것'과 달리 간접화행에 의해 명령을 표시하기도 하므로 성격이 다른 것을 보았다. '-도록, -ㄹ 것'은 본래는 문장종결어미가 아니나, 명령에 쓰일 경우, 문장종결적인 명령표현의 어미로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부사형어미, 관형사형 어미와 형식명사의 결합형이 종결어미적으로 기능을 확대한 예는 통시적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崔明王, 1976 : 149~50, 李賢熙, 1982 등 참조).

3.2. 명령표현의 어미로 기능하는 '-도록'과 '-ㄹ 것'의 용법, 의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도록'은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는 표현이나, '-ㄹ 것'은 (33 나)에서 본 것처럼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기도 하나, 주로 단독적 장면에서 쓰인다.

의미상, '-ㄹ 것'이 '-도록' 보다는 강한 의무양태 표현이다. '-도록'

25) '-도록'은 복합문에서 '-게'와 의미기능이 유사하나('-도록, -게'에 선행하는 종속절은 주절의 사건 뒤에 일어날 일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도록'만이 주어 2인칭과 호응하여 명령을 나타내는 것은 '-게'가 타동구성과 밀접하여 인칭계약이 따르는 현상과 관계있는 듯 하다.

- i) 가. 영희가 가도록 일러라
나. 영희가 가게 일러라
ii) 가. 네가 가도록 해라
나. *네가 가게 해라

26) '-ㄹ 것'은 명령에서는 의무양태 표현이나, 진술에서는 인식양태 표현이다. 동일형식이 인식적인 해석, 의무적인 해석을 다 가질 수 있는 예는 기타 확인법형태소 '-엇-'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영어의 경우에는 다음 문장에서 'be to come'이 '올 것이다' '와야한다'로 두가지 양태해석을 갖는다.

- i) Billy is to come in now

은 행동의 가능성을 허락할 때 쓰이나, ‘-ㄴ 것’은 그렇지 않다.

- (34) 가. 좋아, 편히 쉬도록
나. ?좋아, 편히 쉬 것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 ‘좋아’ 다음에 ‘-ㄴ 것’이 후행한 (34 나)는 자연스럽지 못 하다.

또한 ‘-ㄴ 것’은 금지를 나타내는 발화에 자주 이용되며 필연성을 의미하는 부사 ‘꼭, 반드시’ 등과는 잘 결합하나 요청을 의미하는 부사 ‘좀, 제발’ 등과는 결합이 부자연스럽다.

- (35) 가. 손 대지 말 것
나. 귀가 후에는 꼭/반드시/필히 손을 씻을 것
다. ?귀가 후에는 좀/제발/부디 손을 씻을 것

- (36) 가. ?손대지 말도록
가. 손대지 않도록
나. 귀가후에는 꼭/반드시/필히 손을 씻도록
다. 귀가 후에는 좀/제발/부디 손을 씻도록

명령법의 부정에는 “의지(volition)의 양태나 제어가능성(李廷玟 1977)”을 의미하는 ‘말-’이 사용되는데, ‘-도록’이 쓰인 경우, (36 가)와 (36 가’)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 ‘말다’보다 ‘않다’가 쓰인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만큼 ‘-도록’이 ‘-ㄴ 것’보다 약한 의무양태 표현임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화제의 기준에서는 ‘-도록’과 ‘-ㄴ 것’의 기능이 유사해 보인다. 상관적 장면에서는 화·청자간에 화제의 문제가 개입되기 마련인데, ‘-도록’ ‘-ㄴ 것’은 화·청자가 동등한 사이거나 화자가 청자보다 [+존대]의 자질을 가질 때 쓰일 수 있다. 종속절이나 내포절의 어미로 ‘-도록’ ‘-ㄴ 것’이 쓰일 때는 ‘-시-’와의 통합에 제약을 받지 않으나, 명령의 경우에는 ‘-시-’와의 통합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 (37) 가. ?이만 쉬시도록
나. *12시까지 서울역 앞으로 모이실 것

(38) 가. 그만, 쉬시도록 하세요

나. 12시까지 서울역 앞으로 모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명령의 간접화행문

간접화행은 통사층위의 문장유형인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담화층위에서 발화수반행위에 필요한 적정조건과 관련하여 자기 진술, 질문, 명령, 제안과 대응적인 관계가 아닌 교차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곧 간접화행을 논의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자기 그 문장효력(literal force)을 진술, 질문, 명령, 청유에 두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²⁷⁾ 한국어에서 명령과 관련시켜 이러한 간접화행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첫째 한국어에서는 명령이 간접화행문으로 표시되는 경우 못지 않게 명령문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공손법의 등급에 따라, 여러 명령법 어미가 존재하고 모든 문체법에 쓰이는 어미 ‘-지’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요청의 부사 ‘좀’과 보조동사 ‘-(어)주다’ 등의 어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시킴’으로서의 명령 의미를 ‘요청, 부탁’ 등으로서의 명령 의미로 완화시키기 위해, 굳이 간접화행문을 선택할 필요가 적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²⁹⁾ 명령문으로 명령이 표시되는 경우를 직접화행이라 부를 수 있다면, 명령문외의 문장이 명령을 표시하는 경우를 간접화행이라 부를 수 있다. 둘째, 명령의 간접화행문은 관계적으로 명령의 발화에 이용되기는 하나 본래의 문장효력을 잃었을 만큼 화석화되지는 않았다. ‘창문 좀 닫을래?’ ‘창문 좀 닫겠니?’ 등에서 관형형어미 ‘-르’ 선어말어미 ‘-겠-’, 그리고 어말어미 ‘-어, -니’ 등은³⁰⁾ 현실에

27) 이러한 견해는 문장효력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에 속한다(Levinson, 1983 : 263~265)

28) 공손법의 등급이 높은 어미일수록 시킴보다는 요청, 제의 의미가 강하고 ‘-지’어미는 명령에서 제의 의미가 간취되며 보조동사 ‘-(어) 주다’가 쓰인 명령은 시킴보다는 부탁, 요청의 의미를 띤다.

29) 영어의 경우에는 요청으로서의 명령은 명령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에 대한 구분 자체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Levinson, 1983 : 264)

30) ‘-르 래’는 崔明玉(1976 : 157)을 따라, 잠정적으로 ‘-르’, ‘-이’ ‘-어’로

주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의미(‘-ㄹ’), 인식양태에서 유래된 의도의 의미(‘-겠’), 의문의 의미(‘-어, -니’) 등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기 의향의 문문, 의도의문문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갖는다. 세째, 명령의 발화수반 효력을 갖는 문장은 명령문과 연관된 요소를 갖는 경우가 많다.³¹⁾ 이를테면 요청으로서의 명령 효력을 갖는 문장은 표면의 문장형식과 상관없이 요청의 부사 ‘좀’이 분포되며(39), 명령의 효력을 갖는 문장에는 화자가 청자는 그 일을 해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적정조건과 관련하여 능력, 평가등에 관계되는 어구가 나타난다(40).

- (39) 가. 창문을 좀 닫아라
 나. 창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다. 창문을 좀 닫겠니?
 라. 창문을 좀 닫을래?
 마. 창문을 좀 닫읍시다

- (40) 가. 창문을 닫아라
 나. 창문을 닫을 수 있니?
 다. 창문을 못 닫겠니?

(39)를 보면, 표면문장형식에 관계 없이 요청부사 ‘좀’이 나타나며, (40)에는 능력에 관련된 어구 ‘수’, 평가에 관련된 어구 ‘못’이 나타난다.

명령의 간접화행문이 명령을 의미하게 되는 과정은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41) 1 단계 : 한 문장의 직역효력
 2 단계 : 표면문장형식의 문장의미를 전의(conversationally transferred meaning)시키려는 화자의 의도 첨가
 3 단계 : 청자의 추리(inference) 전개
 4 단계 : 청자의 해석 완료

분석한다.

- 31) 명령문과 연관적인 요소를 명령문의 반사표지(reflexes)로까지 볼 수 있는가(Levinson, 1983 : 265~267)에 관해서는 더 천착될 필요가 있다.

(41)과 같은 과정을 거쳐, 명령의 간접화행문이 명령의 효력을 지니게 될 때,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2 단계와 3 단계가 될 것이다. 화자가 표면문장의 직역효력을 명령으로 전의시키려면, 우선 표면문장에 명령으로 전의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³²⁾ 화자는 그러한 요소를 주로 명령의 적정조건과 관련시켜 전의시키고자 하는데,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추리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전의를 가능케 하는 요소와 명령의 적정조건과의 효과적인 연계성이기 때문이다.

명령의 간접화행문으로 흔히 쓰이는 문장들을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으로 나누어 예시하면서 예시된 간접화행문의 어떠한 요소가 명령의 어떠한 적정조건과 관련하여 명령의 효력을 갖는가를 보기로 한다.

이용될 명령의 적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沈在箕外, 1984 : 157~164, 김태자, 1987 : 79 Searle(1979 : 44))

- (42) 예비조건 : 청자가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화자가 믿는다
 성실성조건 : 청자의 장차 행위를 화자가 원한다
 명제내용적조건 : 청자의 장차 행위를 화자가 예견한다
 필수조건 : 청자가 행위를 하게끔 화자가 시도한다

4. 1. 의문문은 상관적 발화장면에서 명령의 간접화행문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흔하다. 명령으로서의 의문문은 'Whimperative', 'Requestion'³³⁾, 등의 특정용어로 지칭될 만큼 의문문이 명령의 효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음은 널리 지적되어 오기도 했다.

명령으로 쓰이는 의문문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43) 가. 물 좀 줄래?
 나. 물 좀 주겠어?
 다. 왜 공부 않니?
 라. 조용히 하는 게 어때?
 마. 나를 데려가면 안 되나요?

32) 표면문장에 명령으로 전의를 가능케 하는 언어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맥락 배경 등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 어떤 문장이 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본고의 관심권 밖이다.

33) 각기 Sadock(1974)와 장석진(1984)에 보이는 용어이다.

바. 문 단으라니까

(43)은 모두 상관적 장면의 발화들로, 주어는 문면에서 생략되어 있으나, 2인칭이다. (43 가)는 현실에 주어지지 않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형태소 ‘-ㄹ’, (43 나)는 의도를 나타내는 인식양태소 ‘-겠-’ 때문에 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청자가 행위를 하도록 시도하는 필수조건이 명령문의 경우는 명령범어미로 실현되지만, (43 가, 나)의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하도록 시도하는 대신, 청자가 행위를 할 것인가(43 가), 행위를 할 의도가 있는가 (43 나)를 질문함으로써, 화자는 청자가 행위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곧 (43 가, 나)는 명령의 필수조건과 관련하여 간접화행이 이루어진 명령이다. (43 다, 라)는 각기 이유를 언급하는 ‘왜’, 평가를 나타내는 ‘어때’ 때문에 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화자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43 다),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평가(43 라)를 세삼 질문함으로써, 공부하는 행위를 안 할 이유가 없고, 조용히 하는 것이 평가가 좋다는 암시를 통해, 청자가 행위를 하도록 시도한다. (43 다, 라) 역시, 명령의 필수조건과 관련하여 명령의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43 마)는 의무내지 행동의 필연성에 호소함으로써 데려가 달라는 요청의 효력을 지닌다. 청자가 행위를 하도록 화자가 시도하는 필수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44 바)는 접속어미 ‘-니까’가 쓰였으나, 억양을 고려하면 의문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본 (43 다)와 유사하게 화자는 이유를 언급함으로써 청자가 문을 닫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이상에서 본 (43)의 예들은 명령의 필수조건과 관련하여 명령의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 무리를 이룬다.

의문문에는 예비조건과 관련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가를 질문함으로써, 명령의 효력을 지니는 예들도 있다.

(44) 가. 물 줌 줄 수 있어?

나. 문 단을 줄 몰라?

다. 문 줌 못 다니?

(44 가)는 방책의 ‘수’, (44 나)는 방법의 ‘줄’, (44 다)는 평가부정의 ‘못’을 이용함으로써, 화자는 청자가 물 줄 ‘능력, 문 단을 능력이 있

능가를 묻고 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닌 바에야, 누구나 그런 능력은 있으므로, 문장형식은 의문문이나, 명령의 효력이 있음을 청자는 추리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의문문은 주로 명령의 필수조건, 예비조건과 관련하여 명령의 간접화행문이 됨을 보았다.³⁴⁾

4.2. 명령의 간접화행문으로 쓰이는 평서문에는 ‘-는/ㄴ다, -(하)니다, -ㄴ’ 등의 어미가 나타나는 것, 화자의 願望이 표현되는 것, 의무가 존재함을 진술하는 것 등이 있다.

어미 ‘-는/ㄴ다’로 끝난 평서문은 상관적발화장면에서만, 그리고 인식양태소 ‘-는/ㄴ-’이³⁵⁾ 명령의 명제내용적 조건과 관련하여 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 (45) 가. 내일은 새벽 5시에 기상한다
나. 귀관들은 연대장의 지시를 받는다

(45 가, 나)는 군대에서 상관이 복수의 하관들에게 명령을 시달할 때, 흔히 쓰는 상관적 장면의 발화이다. (45 가, 나)가 명령의 효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는/ㄴ-’이다. 화자는 ‘기상하다, 지시를 받다’는 행동이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는/ㄴ-’을 통해 발화함으로써, 곧 ‘-는/ㄴ-’을 통해 명령의 명제내용적 조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청자가 화자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그런데 ‘-는/ㄴ다’ 어미가 이용되고 있으나, 다음 (46)은 명령의 간접화행문이 되지 못 한다.

- (46) 가. 오늘은 밤 12시에 점호한다
나. 3교시에 국어고사를 실시한다

(46 가)는 상관적 장면의 발화이지만, 서술어 ‘점호하다’의 의미내용

34) 의문문이 명령의 표현으로 자주 채택되는 이유로는 의문문과 명령문이 공유하는 의미상의 특성(언어적이냐, 비언어적이냐 차이는 있으나, 둘 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요청이라는 점), 담화상의 특성(둘 다 관계적 태도의 발화)을 더 고려해야 할 것이다.

35) 각주 8 참조.

으로 미루어, 주어는 1인칭이므로 명령이 되지 못한다. (46 나)는 시험 때의 공지사항으로 인쇄물에 채택되는 단독적 장면의 발화이다. 주어는 문면에 없으나, 동사 ‘실시하다’로 미루어 주어는 화자인 시험을 주관하는 교무처 정도로 상정된다. 주어가 2인칭이 아니므로, ‘국어교사는 3교시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도의 진술의 효력을 지닐뿐, 명령이 되지 않는다.

어미 ‘-(으)니다’로 끝난 평서문은 단독적 장면에서 명령의 간접화행문이 된다.

(47) 가. 3교시에 국어교사를 실시합니다

나. 작품에 손 대지 맙니다

(47 가)는 중의적이다. (47 가)는 진술과 명령의 효력을 다 가질 수 있다. 합쇼체어미 ‘-(으)니다’로 미루어 보면, 주어는 화자(‘교무처’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청자(‘교사’ 정도)가 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명령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 (47 나)의 주어는 동사 ‘말다’로 미루어 청자로 상정된다. (47 가, 나)가 명령이 되게 하는 요소는 동사의 현재형과 직설법형태소 ‘-(으)니-’이다. 화자는 동사의 현재형과 직설법형태소를 통해, 시험을 실시하다(47 가), 손 대지 말다(47 나)의 행동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술한다. 화자는 명령의 명제내용적 조건을 원용시킴으로써, 곧 청자의 행동을 예견하는 대신, 청자의 행동이 이루어짐을 관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청자가 화자의 관견대로 행동하도록 명령한다.

화자의 원망이 표현되는 평서문은 상관적 장면, 단독적 장면 모두에서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48) 가. 물 좀 주기 바래

나.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라다’가 쓰인 (48)과 ‘-면 좋겠다’, ‘-면 한다’ 등 화자의 원망이 함축되는 원망표현의 평서문은 명령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곧 화자는 청자가 행동을 하기 원하는 자신의 감

정을 진술함으로써, 청자가 자신의 원망에 부응하도록 유도한다.

의무양태가 함축된 다음 (49)와 같은 평서문은 화자가 권위있는 존재일 때,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 (49) 가. 거짓말하면 못 쓴다
나. 열심히 공부하였다

화자는 권위를 가지고 청자에게 행동의 의무를 진술함으로써 명령을 유도한다.

본질에서는 ‘는/-는다’ 평서문은 상관적 장면에서 인식양태소 ‘-는/ㄴ-’ 때문에, ‘-(되)니다’ 평서문은 단독적 장면에서 직설법형태소 ‘-니-’ 때문에, 원망표현의 평서문은 명령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명령의 효력을 가짐을 보았다.

4.3. 청유문이 명령의 효력을 갖는 장면은 상관적 장면으로 한정된다.

- (50) 가. 거, 표 좀 빨리 팝시다
나.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다. 계산 좀 빨리빨리 하자

(50 가)는 매표구 앞에서, (50 나)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50 다)는 상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다. 화자와 청자의 공동행동에 대한 청유가 청유문의 본래용법이나, 청자만이 행동하도록 청유하는 (50)이 가능한 이유는 (50)이 청유문본래의 담화상 협조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梁續錫, 1976). 곧 청자만의 행동수행에 화자는 간접적으로 협조할 수 있으므로, 화·청자의 공동 참여라는 청유문 본래의 참여원칙에 (50)은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³⁶⁾

5. 결 론

명령범어미로 분류되어온 ‘-어라, -게’는 명령문에만 쓰이는 어미는

36) 청유문이 화자만의 행동을 제안하는 예도 많다. (나도 한마디 하자, 신문 좀 봅시다)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명령법어미 목록에 대한 검토작업, 어미형태들의 원초적 의미추구 작업등의 필요성을 제기시키는 한편, 명령문을 어미형태 중심으로 기술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본고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우선 ‘-어라, -게, -구료’가 쓰인 문장을 중심으로 명령의 문법적 제약과 의미특성을 음미함으로써, 명령법이 독자적인 문체법법주임을 확인하는 데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명령문은 주어가 2인칭, 혹은 적어도 ‘감추어진 2인칭’이며 서술어는 동작동사에 한정되고 서술어에는 시제형태소와 인식양태소가 통합할 수 없다는 문법적 제약을 갖는 바, 이러한 제약은 명령이 의무양태표현, 그 중에서도 지시표현에 속한다는 의미특성과 밀접하다. 지시표현은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하도록 발화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명령은 화자의 앎, 믿음등 인식과는 무관하게 청자의 행동만을 문제삼으므로, 주어제약, 서술어제약, 인식양태소 통합제약이 생기게 된다. 시제형태소 통합제약은 지시가 내재적으로 미래의 세계와 연관된다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2) 명령표현에 이용되는 연결어미 ‘-도록’, 관형사형과 명사형 어미의 복합형식 ‘-ㄴ 것’, 명사형 어미 ‘-ㅁ’ 중에서 ‘-도록’, ‘-ㄴ 것’은 명령법고유의 어미는 아니나, 명령표현의 어미로 기능한다.

(3) 명령의 간접화행문에는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등이 있다. 이들 간접화행문이 명령의 발화수반효력을 갖는 까닭은 특정어구가 명령의 발화행위에 필요한 적정조건과 어느 지점에서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정어구는 의문문의 경우 ‘-ㄴ, -겠-, 왜, 수’ 등이었고 평서문의 경우 ‘-는/ㄴ-, -(ㄴ)니-, 바라다, 좋겠다’ 등이었다. 청유문의 경우는 특정어구 때문이 아니라 담화상의 화·청자 참여원칙에 의해 간접화행이 성립된다.

간접화행에 의한 명령도 명령법과 유기적인 관련아래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간접화행문을 논의에 포함시켰으나 불충분하다. 간접화행은 결국 의미론적인 문제이므로 실증적이고 분석적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후일의 연구를 기약한다. ■

〈참 고 문 헌〉

- 高永根(1973),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어학연구 10-1.
 _____(1976), “現代國語의 文體法에 대한 研究”, 어학연구 12-1.
 _____(1986), “叙法과 樣態의 相關關係” 國語學新研究, 탐 출판사.
 金忠會(1977), “十五世紀 國語 命令法 再攷”, 충북대논문집 15.
 김태자(1987), 발화분석의 화행의미론적 연구, 탐 출판사.
 노대규(1981), “국어의 감탄문 연구”, 말 6.
 徐禎穆(1983), “命令法語尾와 恭遜法의 等級”, 관악어문연구 8.
 서정수(1978), “‘르것’에 대하여”, 국어학 6.
 徐泰龍(1984), “定動詞語尾의 形態論” 진단학보 60.
 _____(1985), “國語의 命令形에 대하여”, 국어학 14.
 安明哲(1983), “現代國語의 樣相研究”, 국어연구 56.
 梁煥錫(1976), “韓國語 樣相의 話用論(Ⅰ)”, 언어 1-1-1.
 李珖鎬(1983), “후기중세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의 의미”, 국어학 12.
 李承旭(1980), “終結形 語尾의 統合의 關係”, 蘭江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李廷玟(1977), “否定命令의 分析”, 어학연구 13-2.
 _____(1981), “話用論”, 월간조선 11월호.
 李賢熙(1982), “國語終結語尾의 發達에 대한 管見”, 국어학 11.
 임흥빈(1983), “國語의 ‘絶對文’에 대하여”, 진단학보 56.
 _____(1984a), “先語末 {-느-}와 實現性의 樣相”, 俞昌均博士還甲紀念論文集.
 _____(1984b),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 -역양”, 말 9.
 _____(1985), “聽者 待遇法上的 ‘해’체와 ‘해라’체”, 素堂千時權博士華甲紀念國語學論叢.
 張京姬(1985), 現代國語의 樣態範疇研究, 탐 출판사.
 장석진(1984), “화행의 이론과 실제”, 어학연구 20-1.
 _____(1987), “韓國語 話行動詞의 分析과 分類”, 어학연구 23-3.
 崔明玉(1976), “現代國語의 疑問法 研究”, 학술원논문집 15.
 최현배(1980), 우리말본(여덟번째 고침 펴냄), 정음사.
 Bolinger, D.(1967), “The Imperative in English,” To Honour Roman Jakobson Vol. I, The Hague. Paris: Mouton.

- Chang, Suk-Jin(1972), "Some Remarks a 'Mixed' Modality and Sentence types," *영어영문학* 50.
- Levinson, S.(1983), *Pragm 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R.(1986), *Mood an 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dock, J.M.(1974), *Toward a Linguistic Theory of a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Searle, J.R.(1979),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